외국 대학과의 자매결연 현황 및 개선 방안 : 학생교류를 중심으로

이 경 오
연세대 국제교육부

1. 들어가며

근대교육이 이 땅에 도입되어 뿌리를 내린 지 일백여 년. 선배 교육자들이 어느덧 한국의 교육계에도 '세계화'니 '국제화'니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다니 놀라운 일이라며 감회에 젖어 하시는 말씀을 자주 듣곤 한다. 우리도 이제 그 짧은 역사 동안 선진교육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이는 단기간에 '한강의 기적' 혹은 '아시아의 용'으로 뛰어오른 우리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얻어진 당연한 결과이다. 한편, 이러한 경제적 발전과 사회 전반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백년교육'도 역사 이래 가장 큰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대학은 WTO의 발족, 문민정부의 세계화 추진 선언, 1997년 교육시장 개방을 앞두고 전진이냐 후퇴냐 하는 절대적 시기에 놓여있다. 바야흐로 우리도 '세계화', '국제화'라는 국가 교육이념의 커다란 물줄기를 타고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화나 국제화에 대한 개념 정의나 실행방안이 뚜렷하지 않은 만큼 이 글에서는 '세계화'나 '국제화'의 의미를 일단 '참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한국 교육의 대외 경쟁력 향상'이라고 정의하겠다.

국내 대학이 외국 대학과 교류하는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극히 몇 년 전까지만 하

더라도 국내 대학은 남의 도움이나 남과의 왕래가 전혀 필요없이 자체적으로 충분한 자급자족이 이루어지는 폐쇄된 단체이었다. 혹은 문만 열면 많은 고객이 몰려와 물건을 사가는 대형 백화점처럼 판매에는 그리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독점기업과 같은 상황에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가만히 앉아 고객이 찾아와주기를 기다리던 시대는 갔다. 상품의 질을 높이고 광고를 하고 경쟁력을 갖추어야 비로소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과 같이 비지니스를 필요로 하는 조직으로 개념이 바뀌고 있다. 이러한 비지니스의 한 단계로, 수출을 늘리고 그리고 수출품을 제조하기 위해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능도 갖추는 것, 이런 것이 바로 국제교류를 추진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대학과 외국 대학과의 교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짚어본 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개선방안에 대한 견해를 조심스럽게 제시해 보겠다. 특히 외국 대학과의 교류 중에서도 현재 국내 대학 대부분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교류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학생교류는 외국 대학과의 교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축을 이루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2.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의 자매결연 현황

국내 대학이 외국 대학과 체결하는 자매결연, 즉 학술교류의 내용을 살펴보면 교수 교환, 학생 교환, 공동연구, 문화 프로그램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교수 교환은 교수들에게 외국 대학에서 학문의 폭을 넓히고 선진 교육제도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학생교환은 학생을 서로 교환하여 학비를 면제해 주고 파견된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상호 인정하여 주는 제도로서, 우리나라 대부분 대학들이 치중하고 있다. 여기에 공동연구나 문화 및 스포츠 교류 등은 대학내 연구소나 단체끼리 주로 단기적이고 일회성의 교류를 갖는 형태이다.

'96년 전반기의 교육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말 현재 전국 134개 국내 대학 중 73%에 해당하는 98개교가 67개국 1,538개 외국 대학과 자매결연을 맺고 교수·학생교류 및 상호 학점인정, 공동연구, 학술정보 자료교환 등의 교류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대학별로는 연세대가 15개국 232개교, 경희대 32개국 124개교, 한국외국어대 39개국 60개교, 고려대 15개국 57개교, 서강대 14개국 41개교, 한양대 5개국 37개교, 이화여대 10개국 33개교, 경북대 11개국 32개교, 서울대 13개국 20개교 등이다. 이는 지난 '91년에 비하여 국내 대학수는 11개교, 국가수로는 18개국, 외국 대학수 717개교가 늘어난 것으로 우리나라 대학들이 최근 들어 국제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교류 국가별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 대학 중 91개교가 미국의 562개교, 79개교가 중국의 207개교, 64개교가 일본의 186개교, 37개교가 러시아의 100개교와 자매결연을 하는 등 교류 전체의 69%인 1,055개교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에 집중되어 있다.

〈표〉 4개 대학의 자매결연 체결 및 교환학생 현황

교류현황 / 학교명	자매결연 체결학교수 ('96년 10월 현재)	연도별 교환학생 현황					
		'94		'95		'96	
		파견	초청	파견	초청	파견	초청
연 세 대	19개국 270개교	7개국 137명	10개국 194명	9개국 291명	10개국 244명	9개국 203명	14개국 293명
고 려 대	16개국 68개교	6개국 59명	4개국 18명	7개국 69명	6개국 30명	8개국 75명	7개국 53명
이화여대	10개국 45개교	4개국 18명	2개국 11명	4개국 34명	2개국 18명	4개국 39명	3개국 15명
경 희 대	34개국 131개교	7개국 31명	6개국 10명	10개국 47명	7개국 14명	8개국 39명	6개국 20명

3. 국제교류의 문제점

교육부 발표 자료 및 몇몇 국내 대학의 외국 대학과의 교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해 낼 수 있다.

1) 지역적 편중

우선 교류대상국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 극도로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어찌 보면 그리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이로 인해 우려되는 문제가 있다. 먼저 이는 우리가 외국 대학과의 교류에서 정치적 혹은 사회적 교류가 빈번한 주변국가들에 치우쳐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둘러싼 미주 지역과 극동 아시아를 제외한 유럽 지역, 개발도상국이라 불리는 동남아시아, 남미 등을 비롯한 제3세계 국가들과의 교류를 등한시하여 처음부터 다양한 국제교류의 참뜻이 빛바래고 있다.

2) 지속적 교류 추진 의지의 부족

교류라 함은 서로간에 지속적으로 오고가는 계속성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부분 국내 대학의 외국 대학과의 교류 실적을 보면, 일방적으로 우리측에서 혹은 상대학교에서만 학생을 파견하는 '일방통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아직도 우리 교육의 전반적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열악하고 학문적 후진성을 극복하지 못하여 선진 외국 대학의 교수나 학생들에게 외면당함에 따라,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초기 어느 기간까지는 우리측의 일방적 파견 혹은 수혜만 지속되다가, 상대 외국 대학에서 우리 자매 대학에 대한 무관심과 기피현상이 증폭됨에 따라 유명무실한 교류관계로 전락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냉전이 종식되면서,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되던 중국과 러시아와의 교류는 최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진 후 내적·외적 지원이 줄어듦에 따라 이들 국가 대학들과의 교류가 오히려 소강상태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각 대학의 교류 현황이 수적으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예전에 비해 얼마나 발전을 이루었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한 교육부에서도 최근 각 대학에 대해 외국 대학과의

유명무실한 교류관계를 자발적으로 정리하고 내실을 기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3) 외국 학생을 위한 교육 여건의 미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 학생들이 지적하는 우리 교육 여건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요즘에는 길거리에서도 흔히 외국인을 볼 수 있고, 대학 캠퍼스 내에서도 우리말을 구사하는 외국 학생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그만큼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늘어났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들어와서 배우고 경험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에게 얼마나 배려를 하고 있는가? 고궁이나 문화재를 찾아가도 제대로 된 외국어 안내판이 갖추어진 곳이 드물고, 시내버스 한 번 타는 것도 외국인에게는 모험으로 여겨지는 현실이 바로 우리의 그것이다. 미국 한 나라에만 6만여 명의 유학생을 보내고, 10만여 명의 유학생을 전 세계에 보내고 있는 '유학대국'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는 지금까지 외국으로 나가는 것에만 치중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손님에 대한 준비는 소홀하였다. 현재 국내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외국 학생들보다 한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은 없다. 이들이 국내 대학에서 공부를 마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간 뒤에, 이들은 다시 우리 국제 교류의 파트너이자 협력자가 될 수도 있다. 이들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우리의 밝은 미래에 대한 기대는 무모한 것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이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의 현실에 대해 이해하면서도, 이미 상당한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외국 여행을 경험하는 한국의 교육 여건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의아해 하는 학생들이 많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최근 들어 국제교류에 관련된 행정 조직이나 기구를 앞다투어 설치하고 국제교류 관련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애쓰고 있다. 그러나 외국 학생들이 학문을 탐구하고 연구할 수 있는 충실한 교육과정이나 강사진 —특히 해당 외국어로 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이 우리에게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다. 기껏 어렵게 초청한 학생들이 국내 대학에 들어온 후 한국어 교육과정 이외에는 제대로 공부할 만한 강좌가 없어서 예정된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지적 호기심을 상실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설상가상으로 낙후된 시설과 미비된 제도로 인하여 의·식·주 생활에 불편을 느낀다면, 이들이 학생의 신분으로 공부에 전념할 수 있을지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우리의 속담도 있듯이 우리나라를 찾아온 외국 학생들이 편히 쉬고 배불리 먹고 안락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여건이 마련된 후에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덧붙여서 가능하다면 이들이 우리의 것을 배우고 익히면서 우리 학생들과 교류를 가질 수 있는 동아리 활동과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연세대에는 본교 재학생들과 유학온 외국 학생들과의 친선 도모와 교류 활동을 목적으로 한 IYC (International Yonsei Club)가 학생들 스스로 조직되어 활발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음을 보면, 성격상 사교적인 외국 학생들이 이러한 교류에 얼마나 목말라 하는지를 실감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내 대학이 자매 대학과 교류를 시작하고도 막상 상대 학교에서 학생을 보내는 시기에 이르러 부랴부랴 준비하지만, 위에 지적된 몇 가지 문제에 막혀 교류가 중도에 단절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4) 홍보의 부족

국내 대학의 국제교류에 관해 지적할 수 있는 문제점은 홍보 부족이다. 필자는 2년 전 만났던 한 외국인 교수의 이야기를 결코 잊을 수 없다. 말레이지아 정부에서는 관광 진흥을 위해 1994년을 '말레이지아 방문의 해'로 선포하였고, 자신이 미국 대학에서 강의하던 그 해에는 캠퍼스 곳곳에 홍보 팜플렛과 포스터가 붙어있어 이미 이를 알고 있었는데, 마침 그 해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자신은 김포 공항에 도착했을 때에서야 한국도 1994년을 '한국 방문의 해'로 추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한다. 이는 외국에서 우리의 것에 대한 홍보가 아직도 지극히 부족함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는 사례다. 특히 외국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파견되어 다녀온 학생들의 보고서를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그들이 지적하는 우리 대학의 외국 대학과의 교류의 문제점이 바로 우리 대학에 대한 홍보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들이 외국 대학에서 생활하면서 발견한 것은 한국에 대한 인식이 놀랄 정도로 전무했으며 포스터와 팜플렛, 학교를 홍보할 수 있는 비디오 테이프의 보급 등 기본적인 자료들이 일본이나 유럽 대학과 비교할 때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였다는 이야기를 잊지 않는다. 주위를 돌아보면, 우리 대학에도 외국에 알리고 외국 학생들을 유혹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5) 학생교류의 허점

제도적으로 충분한 준비가 되기 이전에 실적만 올리기에 급급한 외국 대학과의 교류는 기형아를 생산할 우려도 갖고 있다. 이를테면 역유학의 경우이다. 대부분 대학들이 교류를 활성화한다는 명목 아래 단순히 실적을 올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국내에서 대학에 낙방하여 조기 유학의 길에 오르거나 혹은 외국 현지 대학에서 일반 학생과의 경쟁에서 뒤떨어져 도피처를 찾고 있는 학생들에게 탈출구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최근 국내 대학의 입시 경쟁이 가열되고 이에 따라 도피성 해외 유학을 떠나는 학생들의 숫자가 많이 늘고 있다. 수학 능력이 뒤떨어지고 개인의 의사가 무시된 채 부모의 일방적 주도로 외국으로 보내진 학생들이 현지 대학에 적응하여 학업에 열중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이들 중 다수의 학생들이 최근 증가되고 있는 한국 대학과의 교류를 틈타 역수입되고 있다는 우려가 상당하다. 이들 중 대부분은 국내 대학에서 수학하는 동안, 학업에 전념하기보다는 국내 대학으로의 편입학 여부를 기웃거리고 불건전한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장본인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연세대 국제교육부에는 이러한 학생들의 문의전화와 지원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입학 자격을 강화하고 학사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물론 이는 현재까지 그리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대학입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과열되거나, 왜곡된 형태의 편법 유학이 늘어난다면 후에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할

것이다.

4. 국내 대학의 국제교류 개선 방안

지금까지 국내 대학의 국제교류와 관련된 문제점을 열거해 보았다. 이 중에는 단순히 국제교류 분야에 국한되거나 혹은 우리의 교육현실이 지닌 전반적인 문제점에 연관되어 드러난 것도 있다. 우리의 대학교육은 현재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위기론'을 주장하는 견해가 상당히 많다. 입시 과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사교육비, 과격한 학생운동 재발, 상실되는 스승의 권위 등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문제점과 상처를 지닌 교육 현실에서 우리 대학들이 국제교류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의식의 국제화

먼저 '국제화'와 '세계화'를 추진하는 대학 구성원의 의식의 국제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국제화 시대에 모든 산업과 문화는 이제 한반도만을 국경으로 하는 시대가 아니라 지구 전체의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위치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승리하는 자만 살아남는다는 '경쟁의 논리'를 깊이 인식해야 한다. 세계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국제적 위상과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의식의 개혁 없이 대학의 진정한 국제화는 기대할 수 없다.

2) 제도의 개혁

이러한 각 구성원이 국제교류에 관련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국제교류를 뒷받침해야 한다. 먼저 우리 학생들의 국제화 의식을 함양하고 고무하기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는 외국어 교육의 강화를 들고 싶다. 모든 학생이 한두 가지의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외국어 학습기회를 늘리고 정규 교육 과정중에 외국어로 강의하는 과목을 확대하며, 해외 어학 연수를 실시하여 학생들이 외국 현지에서 생활하며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례로 네덜란드에서는 자국의 학생들에게 모국어인 네덜란드어를 비롯하여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 등 4개국어를 교육하며, 몇 학교는 일정한 학기가 되면 학생들이 외국에 교환학생으로 반드시 파견되어 공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한 사례이다.

3) 독창적인 국제교류의 추진

필자는 최근 2, 3년 사이에 타대학 국제교류 관련부서의 담당자나 관심있는 분들의 방문을 빈번하게 경험하여 왔다. 그들의 방문 목적은 거의 획일적으로, 국제교류를 통한 '국제화', '세계화'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를 물어오곤 한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학 내에서 국제교류 관련업무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했는데 이제 상황이 달라졌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너도나도 앞다투어 국제교류 담당 부서를 신설하고 조직을 정비하여 당장이라도 고지로 돌격할 것 같은 사명감에 젖어 있다. 이는 마치 아군이 보유하고 있는 화력과 병사의 숫자에 대한 자세한 파악 없이 어떠한 전술로 돌격할 것인지만을 궁리하는 양상이다. 필자가 우려하는 것은 획일적이고 특징

없는 복제품 생산에 대한 것이다. 나름대로 특색을 갖추고 각 대학의 실정에 맞게 고안한 국제교류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시도가 부족하다. 우리가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듯이 각 대학의 실정과 여건, 그리고 다른 대학에 비해 발전 가능성이 높은 특화된 분야를 채택하고 이에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특성화·전문화하면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타대학에 흔치 않은 관광대학을 설치하고 있는 경기대는 교육개혁 사례 중에서 러시아 극동대학과의 국제합작교육사업을 추진하는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고 중국의 개방정책과 맞물려 극동 지역이 동북아시아의 교통, 무역, 관광 등 여러 측면에서 거점으로 대두되리라는 예견에 따라, 관광센터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연구팀을 파견하고 구체적인 보고서 발간이 이미 완료되었다. 여기에 러시아 극동대학교에 관광센터, 경기대에는 러시아 센터를 설립, 상호 교류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수 및 학생 교류를 추진하고 타대학 유사 학과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리라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여러 대학에서 나름대로 독창적이고 바람직한 계획들이 추진되기를 바란다.

4) 외국 학생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여기서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 학생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교육 여건 개선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들을 우리나라에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속적으로 외국어로 된 대학의 홍보물을 개선하고 제작함으로써 그들의 관심을 이끌어야 한다. 최근 들어 각 대학에도 컴퓨터 시설이 보강되어 인터넷 등을 통해서 더욱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국내 대학들도 웹과 같은 통신망에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각 대학의 전반적인 자료와 국제교류 관련 프로그램을 수록하여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원하는 시간에 외국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시도하였으면 한다.

그리고 이들이 국내 대학에 들어왔을 때 안락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숙사 시설을 마련하여 주고, 부대 복리시설에도 투자를 함으로써 외국 학생들이 가지는 의·식·주에 대한 부담감과 거부감을 제거해 주어야 한다. 최근 들어 한국에 관심이 많은 외국 학생들이 국내 일반 가정에 머물며 숙식을 해결하고 서로 깊은 유대를 맺는 'Host Family' 제도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소규모이지만, 단순히 당사자들만의 교류가 아닌 국제교류의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한 가지 방법으로 적극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

5)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더불어 외국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도입은 학생교류의 궁극적인 성공 여부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들의 학문적 의욕을 고취시키고 한국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킬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외국에서 붐이 조성되고 있는 한국학에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최근 몇몇 대학에서 해외에 한국학 연구소나 관련 단체를 설립하여 현지 외국인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다.

특히 한국학 관련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저명한 한국학 학자를 초청하여 주제강연 및 토론, 자료제공, 문화유적지 및 산업체 견학 등 현장교육을 통해 한국을 정확히 인식시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확대는 다방면에 걸쳐서 연구될 수 있다. 먼저 외국 학생들과 한국에 들어오는 재외동포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교육내용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한국어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언어가 되면서,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관심이 많아지고 한국 내에서 혹은 외국 현지에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효율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나 교사는 물론이고 수업의 매개체가 되는 교재의 개발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 차원에서 혹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대학 내에 있는 한국어 교육기관을 통한 교재 개발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요즈음 국내 각 대학에서 외국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선호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여름방학 동안 운영하는 '국제하계대학'을 들 수 있다. 이는 외국 대학 재학생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생들까지 포함하는 과정을 개설하여 재외동포들의 모국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여러 모로 이점이 많다. 여기에는 또한 정규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우리 고유의 문화와 예술 그리고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교육 프로그램도 병행하면 더욱 큰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제하계대학의 운영은 우리 대학들이 국제교류와 관련하여 시도해 볼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접근 방법이면서도 운영 능력을 점검할 수 있는 시금석으로 이용될 수 있는 분야이다.

대외적으로는 요즈음 각 대학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외국 현지 분교 설립도 바람직한 접근방법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한양대, 서울대, 서강대, 고려대 등이 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LA, 연변 등 교민 밀집 지역이 주로 고려 대상이 되고 있다. 국내 대학들의 해외 분교 설립은 상당한 수적 증가를 보이고 있는 해외교포들의 모국 대학 진학이 쉬워지고 국내 대학 학생들의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무분별한 어학 연수에 따르는 외화 낭비를 줄이는 효과도 있어 세계화 추세에서 해외 분교설치가 국제교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동시에 해외 분교는 국내 대학 본교의 해외 행정업무를 보좌하고 홍보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데 외국 현지 동문관리, 자매학교 교류와 관련된 문제 등을 현지에서 손쉽게 대행하여 처리할 수 있다는 이점도 거둘 수 있다.

5. 맺으며

필자는 국내 대학의 국제교류를 논하면서 모든 것은 단지 돈으로만 이룰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우리가 대학교육의 발전을 위해 구성원의 삼위일체－교수, 행정직원, 학생－를 주장하듯이, 국제교류에도 다같이 참여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바야흐로 국제화·세계화 시대의 도래와 함께 우리의 생활이나 교육도 자연스럽게 국제화·세계화

로 진행되도록 튼튼하게 가꾸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 대학의 외국 대학과의 교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필자는 항상 국제교류의 창구에서 외국 학생들을 만나고 그들을 위한 제도개선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 왔지만, 개선의 여지를 가득 안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보다 많은 투자와 관심을 관계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이 글을 맺고자 한다.

이경오/한양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노스웨스트 항공사를 거쳐 현재 연세대학교 국제교육부에서 다년간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해 왔다.

大學敎育

좋은 독자는
좋은 책을 만든다고 합니다.

본지를 더욱 알찬 내용으로 꾸며줄
독자 여러분의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학교육관련 논설, 대학에서의 연구·교수 및
사회봉사 활동 중에서 대학사회에 시사를 줄 수
있는 주제 논의, 본지에 게재된 글에 대한 반론 등

■ **보낼 곳**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우)150-74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보자료부
『대학교육』 편집실
(전화 : 783-3891, 780-7942
팩스 : 780-8311)

■ **해당 칼럼 및 분량**

○ 논단 (200자 원고지 50장 안팎)
○ 대학담론 (25장 안팎의 수상)
○ 나의 수업
(30장 안팎의 수업관 및 수업방법 소개)
○ 대학은 지금
(30장 안팎의 대학 관리운영 혁신사례 등)

■ **참고사항**

○ 원고는 편집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하며, 제출된 원고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필요한 경우, 편집자문위원회는 집필자와 협의하여 편집형식에 맞게 원고를 수정·보완할 수 있습니다.